

랭전의 종식을 전후한 시기 현대자본주의《민주화론》의 등장과 그 특징

한 철 주

오늘 자본주의정치변호론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야망을 변호하는 이른바 세계의 민주화에 대해 떠들면서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을 저해하는 반동리론을 조작류포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리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조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500페이지)

현대자본주의《민주화론》은 자본주의비교정치학리론의 최신판으로서 1960년대에 널리론의되던 《정치발전론》을 리론적기초로 하고있다.

자본주의정치학계의 비교정치학은 세계적규모에서 여러 나라들의 정치현실을 비교분석하여 자본주의반동통치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 지배주의정책의 실현에 복무하는 학문분야라고 말할수 있다.

자본주의정치학계에서는 비교정치학의 시조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으며 그 이후의 대표자들로서는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유 등을 들고있다.

현대자본주의정치학계에서 비교정치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즉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시기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비교정치학분야의 리론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책동을 변호하기 위한 방향에서 심화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랭전이 시작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속에서 새로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을 어느 진영이 쟁취하는가 하는것은 두 진영의 력량관계를 변화시킬수 있는 관건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신식민주의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주요한 초점의 하나로 되였다.

특히 1950년대말 1960년대초에 걸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낸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현실적 조건은 미제로 하여금 새로 독립한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가로막고 저들의 신식민주의지배체제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활한 책동에 매달리게 하였다.

자본주의세계 특히 미국의 반동정치학계에서는 새로 독립한 국가들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저들의 세력권에 끌어들이기 위한 학술적론의가 당면한것으로 공인되고 널리 벌어지게 되였다.

《정치발전론》에서는 매개 나라의 《정치발전》단계의 차이에 의하여 정치체제를 류형화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정치발전》의 단계가 보편적으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력사적경로를 따라 진행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치발전론》은 자본주의정치학계에서까지 《단편적인 시각》으로 서방의 정치를 리상화하는 《서방중심주의적사고의 발상》, 지난날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 대하여 종주국들의 정치체제야말로 리상적인 정치발전을 수행한 《본보기》라는 인식을 주며 이 나라들도 종주국과 같은 정치체제의 형태를 갖추면 정치발전을 수행하는것으로 된다는 《제국지

배»적인 관점에 기초하고있다는 규탄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현실에서 새로 독립한 국가들의 정치발전이 다양한 추이를 보이면서 《정치발전론》은 실천적으로도 파산에 직면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로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 새로 독립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새 사회건설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해나서고 한편으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에 의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정치적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제국주의의 앞잡이인 군부파쑈분자들에 의하여 군사파쑈독재체제가 수립되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이러한 정치적변화는 국가가 통일되고 《국민적동일성》이 형성되며 《국민의 참가에 의한 민주정치》가 실현된데 뒤이어 나라가 부유해지고 《복지국가》화하여간다는 《정치발전론》의 가정이 허구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자본주의가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한 1970년대에 이르러 《정치발전론》은 그 비과학성과 기만성으로 하여 쇠퇴일로로 걷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비교정치학분야에서는 1970년대부터 그 기만적성격이 여지없이 드러난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하여 일면적으로 절대화하던 립장에서 벗어나 미국이외의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정치를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 상정시키는 주장들을 들고나왔다.

현대자본주의정치변호론자들은 《정치발전론》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령전종식을 전후한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의 《일체화》책동을 변호하는 《민주화론》을 조작류포시키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로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자본주의비교정치학분야에서의 기본은 세계의 《민주화》에 관한 논의들이었다.

《민주화론》에서는 《정치발전론》을 비롯한 선행한 자본주의비교정치학의 론조들을 되살리면서 여러 나라들에서의 정치적변화과정을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전제우에서 설명하였다.

1980년대에 제창된 《민주화》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유럽의 일부 나라들과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정치체제들의 변화과정을 《민주화》로 묘사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이러한 흐름에 끌어넣으려고 시도하였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과 그에 놀아난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력사발전의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기화로 하여 전세제를 서방식자본주의로 만들기 위한 침략과 전쟁책동을 악랄하게 추구하였다.

현대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자본주의복귀과정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간섭책동을 《민주화》를 위한 《지원》으로 묘사하는 파렴치한 리론조작에 발광적으로 매달렸다.

《민주화론》은 이처럼 20세기말에 초래된 력사발전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악용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의 《일체화》책동을 변호하는 반동리론으로서 자본주의정치학계의 하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현대의 자본주의비교정치학을 대표하는 《정치발전론》과 《민주화론》은 량자가 다 이전의 자본주의정치리론들과는 달리 서방의 자본주의나라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정치적변화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세계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반동리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민주화론》은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의 《일체화》책동이 더욱 악랄하고 교활하게 벌어지는 시기에 전개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정치발전론》과 다른 특징을 띠고있다.

《민주화론》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앞선 시기에 서방식《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경험》을 《민주화후진국》들에 적용하려는 관점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이전의 《정치발전론》에서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를 확립하였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을 《표본》으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정치발전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그러한 가설이 허구적이라는것이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정치체제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게 될것이라는 주관적이며 서방중심주의적인 견해를 반영한 《정치발전론》은 다른 민족과 국가에 대한 멸시와 지배주의론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우기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리론실천적과산을 먼치 못하게 되였다.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매개 나라에서 정치의 발전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따라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나라의 사회력사적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 맞는 정치발전의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다른 나라들에 저들의 정치체제를 표본으로 강요하던 시기는 지나갔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서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이다.

《정치발전론》이 파산에 직면한데로부터 《민주화론》에서는 서방중심의 정치체제를 일률적인 보편적기준으로 내거는 논의를 계속할수 없게 되었으며 표면상 《정치발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다 교활한 방법으로 정치의 서방화를 설교하였다. 다시말하여 1970년대에 서방식정치체제를 받아들인 남유럽나라들로부터 시작하여 개별적나라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표방하면서 앞서 《민주화》를 수행했다고 하는 나라들의 《경험》과 《교훈》을 다른 나라들에 적용하려는 논의를 전개하고있는것이다.

결국 《민주화론》은 《정치발전론》에서처럼 서방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정치체제를 표본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일부 나라들의 비교적 《새로운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따라배워 정치의 서방화를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교활한 논의로 일관되어있다.

《민주화론》의 특징은 다음으로 《민주화》과정에서 노는 《정치적참가자》의 역할을 중시하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정치발전론》에서는 《정치체계론》이 리론적전제로 삼은 《구조-기능주의》적도식에 따라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정치발전과 민주화가 필연적으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 수행되는 자연적과정으로 묘사하였다.

《정치발전론》에서는 개별적나라들에서 정치적변화과정을 주도하는 정치적력량이나 해당 나라의 사회력사적특성 같은것은 념두에 두지도 않고 정치의 서방화를 제창하였다. 이것은 《정치발전론》이 자연과학적원리를 사회정치현상의 연구분석에 적용하면서 《과학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표방》하는 《정치체계론》으로 출발한데로부터 오는 필연적귀결이었으며 서방식정치체제가 인류보편의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민주주의정치체제라는 허구적가정에서 출발한 비과학적론리였다.

정치발전의 담당자를 배제한 이러한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논의는 서방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설교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관점의 리론적표현이다. 따라서 그것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각이한 사회력사적특성에 관계없이 궁극적으로는 자연히 서방식으로 변

화하여가게 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전제밑에 조작된 허구에 불과하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화론》에서는 《정치발전론》에서 주장하는 《극단한 객관적일반화》가 리론과 현실과의 배리를 낳게 되었다고 하면서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정치발전》과 《민주화》과정에서 《정치적참가자》가 노는 역할에 따라 그 형태들이 서로 다른것으로 묘사하고있다.

즉 《민주화》의 《정치적참가자》가 《엘리트》인가 대중인가, 《엘리트》라면 사민과 군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그리고 《민주화》에 관여하는 《참가자》들의 호상관계가 협조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대적인가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는 각이한 특성들을 논의하고있다.

《민주화론》에서는 《민주화》의 주요《정치적참가자》가 누구인가 하는데 따라 그의 유형에서도 차이가 보여진다고 하고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민주화》된 정치형태도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논의를 펴고있다.

지난 시기의 《정치발전론》에서는 어떤 나라의 정치적변화든지 결과적으로는 서방식정치체제가 경과한 하나의 로정을 따라 진행되게 된다는 가정밑에 그 과정전체를 일괄하여 논의하였다. 말하자면 《정치발전》의 모든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자연적으로 진행되어 발전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정치체제와 같은 종착점에 도달하는것으로 묘사하였으며 그 과정에 참가하는 《정치적참가자》나 해당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환경은 거의 논의밖에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론》에서는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민주화》의 형태가 반드시 서방의 《선진민주주의나라들》과 동일한것이 아니며 《서방식민주주의》와는 다른 《아시아형민주주의》도 있을수 있고 지어는 《서방식민주주의》와 《아시아형민주주의》와의 공존도 가능하게 된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화》의 단계도 지속적인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이행》과 《정착》이라는 두개로 나누어 취급하고있다.

이처럼 《민주화론》은 《민주화》의 《정치적담당자》에 주목한다고 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을 받은 사회주의배신자들과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 서방에 대한 환상에 물젖은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서방식정치체제가 도입된 현실을 합리화하는 한편 개별적나라들의 《경험》을 선전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각이한 사회력사조건과 환경에 맞게 서방식《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받아들일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설교하고있다.

이와 같이 현대자본주의《민주화론》은 랭전의 종식을 전후한 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일체화》책동을 《민주주의》의 간판으로 합리화하는 사상리론적도구로 등장한것으로서 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성격을 띠고있는 세계제패론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인권》의 간판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무모하게 발악하고있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동적사상리론공세를 단호히 짓부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